

지하상가 공실, 공연 연습공간·수장고로 활용을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 토론회 우수 정책 아젠다 선정 사업 검토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해 공연 연습공간과 미술작품 수장고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우수 정책 아젠다 1위로 선정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광주문화재단(대표 황봉년)이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 시민 문화정책 토론회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2022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를 직접 시민으로부터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른바 상향식 참여형 담론의 장.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기탄없이 토론했다는 것을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는 일컫는 것처럼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 논의됐으며 의미있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모두 125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은 저마다 테이블에 앉아 평소 가지고 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개진했다. 기존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과는 다른 정책 제시 과정은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선하면서도 역동적이었다. 행사의 시작을 프린지페스티벌 '시민, 예술숯 물들GO'라는 주제의 시민 댄스에 맞춰 흥미와 재미를 유발해 이색적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두 도시재생, 문화예술 복지, 문화공간, 문화도시, 문화행정, 생활문화, 환경과 문화 등 모두 8개 주제가 다뤄졌다. 사전에 신청을 통해 모집된 예술인을 비롯해 문화단체, 청년, 시민 등 100명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으며 총 7개 분야 10개 원탁 테이블(조)로 나눠 펼쳐졌다.

특히 각 원탁 테이블에는 13명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력 퍼실리테이터들이 참가자들과 행사의 목적, 진행 규칙을 공유해 토론을 도왔다. 조별로 리더 역할을 한 퍼실리테이터들은 사전에 참여자 섭외도 하고 인터뷰도 담당했다.



최근 광주문화재단 주최로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문화도시 광주, 백가쟁명' 장면. <문화재단 제공>

현장에서는 테이블 별 '토의주제 명확히 하기'와 '제한하기'를 거쳐 시민 체감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각 조에서 선정한 한 개의 제안을 1분 발표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후 전체 참가자가 온라인 투표(구글 폼)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수 정책 아젠다 1위는 문화복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던 2조가 차지했다. 이들은 지하상가 공실을 공연계 연습공간과 미술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어 있는 지하상가의 공간 활용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제안은 현실적이며 설득력있다.

2위로 선정된 우수정책 아젠다는 '환경과 문화'를 담당한 9조의 의견이 뽑혔다. 이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비롯한 후세대들에게 환경문화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육은 어릴 적부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을 경험해야 지속가능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3위에 뽑힌 우수정책 아젠다는 문화행정에 연관된 의견이었다. 6조는 광주에 문화시스템 플랫폼의 원스

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주에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광주만의 콘텐츠가 필요한 이유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선정된 아젠다는 향후 시 문화체육실과 상의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재단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젠다로 선정되지 못한 의견들 중에도 눈길을 끄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문화기획을 배우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집약적 전문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출판 콘텐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 기후, 문화, 예술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 '재활용품(환경 관련)을 위한 판매처나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18세 자립 청소년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문화 예술 분야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등이 제기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스트휴머니즘'

ACC 레지던시 본격 시작...8개국 예술가 참여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에서도 레지던시(입주자가 창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작가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연구와 창작, 실험 제작 등을 펼칠 예정이다.

ACC 입주자가 창작지원 프로그램(레지던시)에 참여한 연구자와 장·제작자가 최근 입주자를 마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들어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레지던시에는 예술과 아트&테크놀로지, 비주얼아트, 다 이얼로그 등 모두 8개국에서 선정된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강의와 더불어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연구과제의 담론적 깊이를 더하고 개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ACC 창작지원센터의 다각적인 지원도 받는다.

오는 15일엔 광주를 여행하고 네트워킹 파티에 참석해 서로의 작업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나눌 예정이다.

활동의 결과물은 오는 12월 15일부터 ACC 복합1관에서 전시된다. 텍스트 연구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연극 분야는 ACC 아틀리에에 올려진다.

한편 ACC는 지난 2016년부터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매년 공동주제를 선정해 다양한 시각과 변주를 융·복합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2021년 진행된 ACC 레지던시 결과 발표전 장면. <ACC 제공>

북적이는 '프리즈 서울' 첫날부터 거장들 작품 판매 순항

'키아프' 6일까지 진행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적 아트페어(미술장터) '프리즈(Frieze) 서울'이 첫날부터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팔리는 등 판매가 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3일 프리즈 서울에 따르면 개막일인 전날 LGDR, 블럼엔포, 자비에 위프켄 등의 갤러리들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부스에 전시한 작품들을 모두 팔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갤러리 블럼엔포는 한국 단색화 대가 하중현과 요시모토 나라 등 일본 작가 등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렸으며 첫날 완판을 기록했다. 세계 정상급 갤러라인 가고시안, 하우스앤웬스 등

의 부스에서도 국내외 수집가들이 거장들의 '예약 판매' 등을 통해 작품을 사들였다.

미국 추상화가 마크 브래드퍼드의 25억 원 상당의 작품은 곡적을 받지 않은 개인 수집가가 샀으며 라 시드 존슨의 7억5000만 원 상당의 작품은 일본의 사립미술관이 구매했다.

프리즈 서울과 공동개최되는 한국화랑협회 주최의 아트페어 '키아프(KIAF) 서울' (6일까지)은 첫날 판매 현황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VIP 티켓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었던 개막일의 관심은 프리즈 서울에 집중돼 키아프 서울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판매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KBS교향악단 연주 무료로 감상하세요

온라인플랫폼 '디지털 K-홀' 66년간 자료 350개 공개

KBS교향악단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수백 개 실황 연주영상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플랫폼 '디지털 K-홀'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K-홀'은 국내 유일의 방송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이 설립 후 66년간 쌓아온 영상자료를 무료로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1000여 개 실황 연주영상을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KBS교향악단은 이 가운데 약 350개 영상을 '디지털 K-홀'에 1차로 올려

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2002년 9월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 2010년 10월 유엔 총회장 연주회 등이 포함됐다. 원하는 작곡가·연주자의 영상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PC·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연주영상을 볼 수 있다.

'디지털 K-홀'은 홈페이지(digitalkhall.kbsymphony.org)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모든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